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 | 2023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보고 | KOA visiting MOA | 2023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 2023 학술상 시상 요강 |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 The 67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3 | 제66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운영보고 | 학회 회원 공지 | JKOA 공지사 항·CIOS 공지사항 | 정원책정지도전문의 논문 접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국내학술행사 | 국제학술행사 | 회원동정·회의실 대관 안내 | 모집공고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특별 기고 | 의료중재원 감정 사례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릿 안내

회장 김기택 · 이사장 정홍근 · 총무이사 이준규



6

2023 Jun vol.400

“Proven Long-term Efficacy & Safety¹⁻⁴”

Synovian[®],

2,724,692

| Global 시노비안 누적처방건수 ('14.3~'22.4 기준[†])

† 국내_심평원 빅데이터, 해외_수출 수량
PROVEN : PRimary Knee OA treatment based on Various guidEIne

시노비안[®] 주

• **주성분** : BDDE가교하이드로콜로이드 3g (BDDE가교하이드로콜로이드(으)로서 60mg) • **성상** : 무색투명하고 점조성이 있는 겔이 워, 아래가 고무마개로 막힌 플라스틱 관(프리필드 시린지) 속에 든 주사제
• **효능·효과** : 관절의 골관절염 • **용법·용량** : 성인 1회, 1관을 술관절강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투여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절강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설명서 개정년월일** : 2019년 7월 8일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LG화학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Ha CW et al, BMC Musculoskelet Disord, 2017 May 26;18(1):223 2. Lee JK et al, Rheumatol Int, 2017 Nov;37(11):1807-1815. 3. LG Chem, Data on file Synovian[®] PMS report, LG-HAFMS001 (14 Jan, 2020) 4. LG Chem, Data on file Synovian[®] Observational study report, LG-HAFMS006 (14 Feb, 2020)

Synovian[®] Inj.

SYN-BR-004-1-MAY22

Contents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	06
2023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보고	07
KOA visiting MOA	07
2023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07
2023 학술상 시상 요강	08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09
The 67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3	09
제66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운영보고	10
학회 회원 공지	10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11
정원책정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12
국내학술행사	13
국제학술행사	17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18
모집공고	18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9
특별 기고	20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27
동양고전산책	30
출간소식	34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릿 안내	37

정형외과학회소식

2023 Jun vol.400 6월호



2023 대한정형외과학회 제 67차 국제학술대회

The 67th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23

October
12-14 (Thu-Sat), 2023

**Songdo Convensia, Incheon,
Republic of Korea**



대한정형외과학회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Greetings from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KOA)

The KOA congress will feature 3 days of plenary, workshop, free paper presentations and many mini symposiums with high-profiled international leading experts covering a wide range of orthopaedic specialties.

We are expecting your participation in the 2023 KOA with your kind presence, valuable papers, and experiences to share together.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the 67th KOA 2023 congress.

Call for Abstracts

- Abstract Submission Deadline: March 20(Mon) ~ May 22(Mon), 2023
- Notification of Acceptance: June 15(Thu), 2023
- Abstract(s) must be submitted online on our website: <http://2023.koa.or.kr>
 - Submission Categories : Oral, Video, E-Poster
 - Subspecialties : Knee, Basic Research, Shoulder and Elbow, Fracture, Hip, Foot and Ankle, Hand, Spine, Paediatrics, Microsurgery, Tumor and Others
- Basic Registration Fees (Foreigners)

Pre-registration (by 18 September)	On-site Registration
200\$	210 \$

Presenting author of the top 100 abstracts will be awarded free registration!

Website : <https://eng.koa.or.kr> Email : ortho@koa.or.kr

About Venue "Songdo Convensia" • From the ICN airport •

BUS

Number 303 (Terminal 1: Bus Stop No.2, No.13, 3F)
Number 303-1 (Terminal 1: Bus Stop No.2, No.13, 3F / Terminal 2: Bus Stop No.1, No.8, 1F)

SUBWAY

Airport Railway → Transfer to Incheon Subway Line 1 Gyeongang Station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tation (Exit 4)
about a 4 minute walk to Songdo Convensia

TAXI

Terminal 1
Regular Taxi (5C, 6C, 6D), Deluxe Taxi (7C, 8C), International Taxi (4c)

Terminal 2
Regular Taxi (5C, 4D, 3C, 3D), Deluxe Taxi (5D), International Taxi (1c)
About 30 minutes by Taxi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currently consisting of 9,000 members. Founded in 1956, The Koa is proud of its rich history, tradition, and leadership in the field of orthopaedics.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 - 무너지는 근골격계 의료체계 “수가 현실화해야”

5월 30일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은 근골격계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형외과 관련 수술 수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골격계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행위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30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수가 체계를 지적했다. 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은 “수술 행위와 치료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비현실적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형외과는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근골격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수술 시 동시 수술로 분류돼 수술 수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70%, 이외에는 50% 수가만 인정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는 수술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산정불가 치료재료 등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며 적자를 메우는 의료비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출된 120개 급여기준 검토 사항 중 69개 항목을 현행 급여기준 유지 판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 관절경 수술, 감염관리를 위한 일회용 방포, 물리치료 인정 부위 등이다.

관절경 수술은 수술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수술과 동일한 수가 적용되고 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정액수가로 실제 사용되는 가격의 10분의 1로 보상받고 있고, 특히 작은 관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은 50%만 보상받고 있다. 감염관리의 기본인 일회용 방포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당일 시행한 여러 부위 물리치료는 한 부위만 인정받는 실정이다. 한 위원장은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 중 흑자를 보는 수가는 전방고정 척추고정술 단 하나뿐”이라며 “이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병원에서도 신규 장비 및 교수 충원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후학 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 위원장의 주장이다.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형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의와 이들을 목표로 한 전공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정형외과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의는 최근 3년 사이 20~30%로 감소했다. 한 위원장은 “불합리한 수가 체계로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기준 현실화(응급대기가 필요한 정형외과 수술 현실화) △산정불가 치료재료 실가격 보상 전환 △80세 이상 내과 질환 동반 환자 수술 시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학회 정홍근 이사장(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우리나라 수술 수가는 미국이나 일본의 10~1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낮아, 젊은 의사들은 수술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수가 체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형외과 의료체계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 대한정형외과학회 제4차 장애판정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보고

일시 : 2023년 5월 21일(일), 08:55~12:40

장소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등록 : 총 345명(실제 참석자 수 : 279명)

KOA visiting MOA



아시아학회장들과의 친목도모와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차 국제학술대회 홍보를 위해 정홍근 이사장이 52nd MOA Annual Scientific Meeting 2023에 방문했다.

◀ 말레이시아 정형외과학회 (MOA) 회장(Prof Dr Tunku Kamarul Zaman Tunku Zainol Abidin – 우측 끝)과 차기 회장(Prof Dr Tengku Muzaffar Tengku Mohamed Shihabudin – 좌측 끝)

2023년 해외연수자 선발 요강

• 모집기간 : 7월 14일(금)까지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자격	① 만 41세 이하의(2023년 7월 14일 기준) 현 직장 3년 이상 근무 자
	② 영어에 능통하여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수련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자
	④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제출서류	① 학회 해외 연수 지원서 1부
	② 교실/과의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 1부
	③ 연수계획서(기간, 연수대상병원, 지도 교수 등 명기) 1부
3. 연수국 및 기간 보조 금액	① 학회가 인정할 만한 기관 및 학술대회(학회 연수)
	② 보조금액(1인당) : 5,000,000원
4. 선발 심의 기준	① 논문 발표
	② 정형외과학회 활동
	③ 학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
	④ 교실의 최근 5년간 연수 혜택 유무
	⑤ 교실의 학회 호응도
	⑥ 선발 후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할 시는 선발을 취소함
5. 기타	① 연수 후 귀국보고서 제출
	②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분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2023 학술상 시상 요강

시상 부문 및 상금

1.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 1) 본 상 : 임상 1편, 기초 1편 각 400만원
- 2) 장려상 : 임상 3편, 기초 3편 각 100만원

2. 외부학술상

- 1) 만례재단상 1편 200만원
- 2) SICOT '93 Seoul 학술상 : 본상 1편 300만원, 장려상 1편 100만원
- 3)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1편 300만원
- 4) ISTA Seoul 학술상 1편 300만원
- 5) CIOS 학술상 1편 300만원

선정 기준

1. 학술논문상

가.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만례재단상, SICOT '93 Seoul 학술상, ISTA Seoul 학술상

- 1) 본 학회 회원이 지상에 발표한 학술적 공헌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 2) 주 연구기관이 국내기관
- 3) 제1저자나 통신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
- 4) 학술상심사위원회 내규에 따른 소정 기준

나. CIOS 학술상은 CIOS 편집위원회에서 전년도 8월부터 해당 년도 7월까지 CIOS에 출간된 논문 중 3편을 추천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 위 모든 논문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도 7월까지 기간에 지상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2.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

- 1) 1983년 10월 13일 또는 이후에 출생한 회원 중 정형외과 관련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 2) 연구논문 업적으로 심사함

신청 방법 안내

- 신청서는 학술상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 추천서 양식은 신청서 작성 과정 중 다운로드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요청
- 제출 서류 : 학술논문상은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 1부, 논문 PDF 파일
: APOA 2007 Seoul 젊은 연구자상은 주임교수 또는 과장 추천서 1부, 논문 목록에 있는 모든 논문 PDF 파일
- 신청 마감 : 2023년 7월 21일(금)까지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1) 해당병원 과장 수신으로 공문 안내
 - 2) 시 상 : 2023년 10월 13일(금), 제68차 정기총회
- 기타
 - 1) 역대 수상 내역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02-780-27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연회원 명단 및 혜택 안내

매년 회갑을 맞으신 수연회원께서는 해당연도 춘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드리오니 아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현	강도원	강동하	강오용	강용호	강흥식	고경석	공경석	구본섭	권기탁	권현섭	김 승
김 철	김경순	김균환	김기성	김기호	김남훈	김동수	김동철	김동형	김민기	김범수	김병철
김상돈	김상욱	김석준	김선규	김성수	김성진	김시환	김연성	김영성	김영중	김영팔	김영호
김용환	김용휘	김원진	김윤식	김응주	김중욱	김진구	김진학	김태훈	김하용	김현철	김형석
김형수	김형진	나기호	남기운	남명곤	노동근	노연섭	노영복	류천환	문성환	문영안	문용호
문진경	문희철	민경대	박 현	박 원	박기원	박동욱	박수성	박용한	박종호	박종훈	박찬지
박찬협	박철홍	박해인	박해일	박현중	박형빈	박흥기	박흥식	배성범	배종우	백대현	백수동
백승창	서대진	서동원	서상동	서승우	서원우	서정환	서진수	성호식	소창성	손수민	송광진
송영오	송원철	송일오	송주현	신득순	신재기	신재훈	신중환	신태식	안기찬	안병문	안상천
안영언	안찬석	엄주석	엄동현	엄재광	오기영	오선태	오세인	오진록	오창수	오형호	왕기봉
우병철	위 성	위오섭	유용환	유재두	유재음	유주형	유창무	유희준	윤성훈	윤창훈	윤현기
은승표	이건우	이계형	이규승	이근일	이기웅	이덕희	이도경	이동기	이동현	이동호	이동화
이득용	이봉진	이상재	이선우	이승림	이승천	이승하	이영국	이영석	이영호	이원익	이은준
이의형	이인묵	이정구	이종봉	이현상	이호승	임경삼	임관수	임용찬	임인택	임태행	전철우
정도혁	정선균	정영률	정영석	정용진	정용호	정유진	정진모	정창훈	정홍근	조규정	조득만
조상열	조용근	조태연	지정규	채수성	최병무	최용수	최우성	최정기	최창혁	한경진	한길주
한 석	한수일	한영찬	허정필	홍성수	황성택	황재욱					

The 67th Annual Congress of the KOA 2023

학술대회 발표 관련 일정

	영문 구연	포스터	비디오
초록접수제한 (수련병원 대상)	초록 제출 편수는 제한이 없으나 초록 심사 시 1년차 전공의 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1저자 또는 통신 저자로 3편까지	(없음)
5월 15일(월)		초록 제출 마감	
6월 15일(목)		초록 채택 결과 발표	
6월 29일(목)		발표 취소 마감*	
8월 4일(금)	완성논문 또는 증보 초록 제출 마감**		(없음)
9월 15일(금)	발표 슬라이드 제출	포스터 이미지 파일 업로드 †	전시할 비디오 파일 제출***

* 발표 취소 마감 이후에 발표를 취소하는 경우 차기 학술대회 발표에 제재를 받습니다.

** 8월 4일까지 반드시 완성 논문이나 증보 초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좌장들께서 세션 진행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 발송되는 초록이므로 처음 제출하신 초록보다 보완된 초록 또는 완성된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시 향후 1년간 제1저자나 통신저자로 구연발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디오 전시상 심사를 위해서 전시할 비디오 파일을 미리 접수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에 포스터 파일은 반드시 9월 15일(금)까지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록접수 마감일(5/15) 이후에는 절대 저자 정보 및 초록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전 수정은 초록을 접수한 ID로 로그인하시어 My page에서 수정 가능하며, Nonmember로 초록을 접수하신 회원께서는 논문 접수번호와 수정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시어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66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운영보고

제1차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준비위원회(2023.05.09.)

- 2023년도 제1차 지도전문의 교육 중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 외상센터 소속 전문의는 기존과 같이 정형외과 정원책정지도전문의로 불인정
 - 척추 block도 기존과 같이 수술에서 제외
 - 정형외과 자체의 물리치료 처방권 관련하여 각 과에 처방권이 있는 경우 인정하기로 하나, 병원 자체에서 정형외과 물리치료 처방권을 주지 않는 경우 병원 공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다.
 - 정형외과 전용 실험실 중 드라이랩도 학회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
-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시 가을턴 전공의(9월 입사자)의 N수를 0.5로 카운트하기로 하다.
-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확인은 각 수련병원의 수련교육부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사항을 같음하기로 하다.

제3차 이사회(2023.05.04.)

- 2023년도 평생공로상 수상자 인준
- 학회 사옥 구매를 위한 후보지 검토 후 후보 매물에 대한 매매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인준하다.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 (JKOA)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 (CIOS)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48,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 주신 회원입니다.

4.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했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 정형외과TV <https://www.youtube.com/@orthopedicstv>

JKOA 공지사항

-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 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 완료된 논문은 저자 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 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 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고 투고 시 저자 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 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영문 저널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가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논문 투고와 적극적인 논문 인용으로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편집진은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SCI 등재 유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정형외과 대표 국제 저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배상

- CIOS는 현재 SCI, SCOPUS, PUBMED, MEDLINE,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 CIOS 또는 대한정형외과학회(JKOA)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가 필수사항입니다.
- 원고 투고 시 저자식별번호 ORCID No.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 논문은 2019년 3월호(11권 1호)부터 적용되며 Journal Impact Factor™ (JIF)는 2022년 6월 부여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기준 CIOS IF 지수는 2.503입니다.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채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증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 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증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OSM(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학회지) 학회지이다.
 -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학회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증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 5) 정원채정 지도전문의는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 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1년도 당해연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 2021년도 직전 4년 :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 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증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증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절기세포재생의학학회
-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증설 1점, 증례보고 0.5점



국내학술행사

1.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제85차 학술집담회

- 일정 : 2023년 6월 8일(목)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본관 2층 임상강의실
- 문의 : Tel. 032-340-2260, E-mail, djgg2023@naver.com

2. 대한의료감정학회 제1차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6월 10일(토)
- 장소 : 연세의료원 종합관 331호(유튜브 온라인 동시 송출)
- 문의 : Tel. 02-2290-8502, E-mail, kaime.manager@gmail.com

3. 경희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Kyung Hee Knee Symposium 안내

- 일정 : 2023년 6월 10일(토)
- 장소 :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
- 문의 : Tel. 02-958-8348, Fax. 02-964-3865, E-mail, noj77@naver.com

4. 대한골다공증학회 호남 및 제주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6월 11일(일)
- 장소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 문의 : Tel. 062-220-6336, E-mail, os.office.6336@gmail.com

5. 가톨릭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제3회 논문워크샵 개최 안내

- 일정 : 2023년 6월 11일(일)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2-2258-2838, E-mail, cmcos2018@naver.com

6. 대한관절경학회 제10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6월 11일(일)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 최덕경 강의실(온/오프 병행)
- 문의 : Tel. 02-2270-0028, E-mail, Koraethro@naver.com

7. 대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제2회 로봇 인공관절수술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6월 17일(토)
- 장소 : 서울부민병원 미래의학센터 라이프사이언스홀 B1
- 문의 : Tel. 02-2620-5127, E-mail, unanhi@bumin.co.kr

8. 삼성서울병원 제20회 SMC ORTHOPEDIC SYMPOSIUM

- 일정 : 2023년 6월 18일(일)
- 장소 :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2-3410-3509, 2206, 1226

9. 대한골대사학회 제11차 Clinical Densitometry Course

- 일정 : 2023년 6월 18일(일)
- 장소 :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마리아홀
- 문의 : Tel. 02-3473-2230, E-mail, ksbmr@ksbmr.org

10.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2023년 CHAMS 개원의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6월 18일(일)
- 장소 :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31-780-5289, E-mail. chaos@chamc.co.kr

11. 대한출기세포/조직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정 : 2023년 6월 18일(일)
- 장소 :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
- 문의 : Tel. 010-8236-6542, E-mail. str1orkr@gmail.com

12.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논문 작성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6월 24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진리관 6층 대강당
- 문의 : Tel. 02-2072-2360, Fax. 02-763-2360, E-mail. lovejjang10@snu.ac.kr

13. 부산, 울산, 경남지회 족부족관절연구회 2023 BUGsFAS 학술대회

- 일정 : 2023년 6월 25일(일)
- 장소 : BPEX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
- 문의 : Tel. 010-4576-7853 (총무 우승훈), 055-360-212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국), E-mail. shwoo7853@naver.com

14.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제18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34차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 일정 : 2023년 6월 25일(일)
- 장소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
- 문의 : Tel. 02-970-8036, E-mail. ossonokorea@naver.com

15. AO Trauma 2023 AO Trauma AP Research Grants 신청

- 일정 : 2023년 6월 30일(금) 23:59까지(홍콩시간 기준)
- 장소 : (온라인) Online Application Submission
- 문의 : E-mail. denise.fung@aofoundation.org

16. 건국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2023년 개원의를 위한 정형외과 심포지엄 Part I

- 일정 : 2023년 7월 1일(토)
- 장소 :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
- 문의 : Tel. 02-2030-7360, Fax. 02-2030-7369, E-mail. twin318@naver.com

17.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대한관절경학회 제18회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 일정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문의 : Tel. 02-3010-3530/3536, Fax. 02-488-7877, E-mail. hjalee@amc.seoul.kr

18. 대한정형통증의학회 심화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31-780-5289, E-mail. kopas5289@naver.com

19. 대한운동계출기세포재생학회 조직 재생의학 스포츠의학 견주관절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5층 대강당
- 문의 : Tel. 052-250-7129, E-mail. 0736362@uhh.ulsan.kr

20. 대한운동계출기세포조직재생학회 조직재생 견주관절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 세종대학교 대양시센터 12층
- 문의 : Tel. 031-820-3066, E-mail. info@ksrl.org

21. 아주대학교 정형외과 제2회 개원의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7월 2일(일)
- 장소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 Tel. 031-219-4416 / 5220, E-mail. orthoajou@gmail.com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제154차 Interhospital conference 개최안내

- 일정 : 2023년 7월 5일(수)
- 장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하 1층 대강당

23. 대한수부외과학회 제6회 수부외과 기초 술기 워크샵

- 일정 : 2023년 7월 8일(토)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4층 418호 윤주홍 강의실
- 문의 : Tel. 010-9475-2338, E-mail. ky10326@naver.com

2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2023년 제2차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 일정 : 2023년 7월 8일(토)
- 장소 : 온라인
- 문의 : Tel. 031-412-5049, E-mail. ayeong0502@naver.com

25. AO Spine Advanced Seminar

- 일정 : 2023년 7월 8일(토)
- 장소 : 중앙대병원 중앙관 송봉홀
- 문의 : E-mail. aospinekorea3@gmail.com

26. 대한미세수술학회 춘계 미세수술 워크샵

- 일정 : 2023년 7월 9일(일)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내 미세수술 실습실
- 문의 : Tel. 010-9475-2338, E-mail. ky10326@naver.com

27. 대한수부외과학회 2023 제1회 CNU Orthopedic Symposium : Hand / Pediatric / Microsurgery

- 일정 : 2023년 7월 15일(토)
- 장소 : DCC(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중회의장
- 문의 : Tel. 042-338-2480, Fax. 042-338-2482, E-mail. kssh@handsurgery.or.kr

28.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2023년 제1차 스포츠 손상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7월 15일(토)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문의 : Tel. 062-220-3147, Fax. 062-226-3379, E-mail. office@kossm.or.kr

29. ISMST 제25회 국제 총격파 치료학회 세계대회

- 일정 : 2023년 7월 21일(금) ~ 23일(일)
- 장소 : 대구
- 문의 : Tel. 070-4121-9673, E-mail. ismst2023.info@gmail.com

30. 세브란스관절경연구회 35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Knee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정 : 2023년 7월 30일(일)
- 장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문의 : E-mail, aac2008@daum.net

3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이명철 교수 정년 기념 2023 SNU Knee Symposium

- 일정 : 2023년 8월 12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
- 문의 : Tel. 02-2072-2360, Fax. 02-763-2360, E-mail, lovejjand10@snu.ac.kr

32. 대한척추기술헌회 Endoscopic Surgery Cadaver Workshop

- 일정 : 2023년 8월 16일(수)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
- 문의 : Tel. 02-566-6031, Fax. 02-566-6087, E-mail, info@isassap.org

33. AO Trauma Course - Basic Principles of Fracture Management 등록 안내

- 일정 : 2023년 8월 23일(수) ~ 25일(금)
- 장소 : 그랜드 하얏트 인천 East Tower 2F
- 문의 : E-mail, aotraumakorea3@gmail.com

34. AO Trauma Course - Upper Extremity with Anatomical Specimens 등록 안내

- 일정 : 2023년 8월 24일(목) ~ 26일(토)
- 장소 : 그랜드 하얏트 인천 East Tower 2F 및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문의 : E-mail, aotraumakorea3@gmail.com

35. 세브란스관절경연구회 제75,76차 세브란스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 개최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정 : 2023년 8월 27일(일)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1F) 수술해부교육센터
- 문의 : E-mail, aac2008@daum.net

36. (사)대한전주관절학회 경기, 인천, 강원지회 심포지엄

- 일정 : 2023년 9월 16일(토)
- 장소 :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 문의 : Tel. 033-240-5197, E-mail, mirae050505@hallym.or.kr

37. 고려의대 관절경연구회 제26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카데바 워크샵(Elbow 및 Ankle 코스)

- 일정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Elbow 8시 00분-오후 12시 30분 / 오후: Ankle, 오후 1시 30분-오후 6시 0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 문의 : Tel. 02-920-5924, Fax. 02-924-2471

38. 계명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제7회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 카데바 워크샵

- 일정 : 2023년 9월 23일(토)
- 장소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및 강의실
- 문의 : Tel. 053-258-4772, E-mail, os@dsmc.or.kr, osdsmc@gmail.com

39. 세브란스관절경연구소 제9회 세브란스 수부 및 상지 카데바 워크샵

- 일정 : 2023년 11월 19일(일)
-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수술해부교육센터
- 문의 : Tel. 010-8704-1703, E-mail, goddo@yuhs.ac

40.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도	개최 월일	병원명	년도	개최 월일	병원명
2023	6월 8일	건국대병원	2024	3월 14일	한일병원
	7월 13일	서울의료원		6월 13일	삼성서울병원
	9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7월 11일	보라매병원
	11월 9일	순천향대병원		9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12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11월 14일	일산동국대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2022년 1, 2, 4, 5, 8, 9, 10, 12월 / 2023년 1, 2, 3, 4, 5, 8, 10월 / 2024년 1, 2, 4, 5, 8, 10, 12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minbom@naver.com (김민범 교수)

41.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회수	개최일	병원명
2023년	제154차	7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55차	9월 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제156차	11월 1일	연세사랑병원
2024년	제157차	3월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58차	5월 1일	세란병원
	제159차	7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제160차	9월 4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제161차	11월 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최 일정 :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5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국제학술행사

1. APOA HULS 2023

- 일정 : 2023년 6월 30일(금)~7월 1일(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 문의 : Tel. 02-3010-8569, E-mail, reg@apoahuls.org

2. AO Spine Advanced Level Regional Anatomical Specimen Course

- 일정 : 2023년 9월 16일(토)~17일(일) (Early-bird 등록마감 5월 28일까지)
- 장소 : 태국 방콕
- 문의 : E-mail, emily.ngai@aofoundation.org

3. EORS 2023

- 일정 : 2023년 9월 27일(수)~29일(금) Porto Congress Centre, Porto, Portugal
- 문의 :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E-mail, kors2838@gmail.com

4.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차 국제학술대회

- 일정 : 2023년 10월 12일(목)~14일(토) 송도 컨벤시아
- 문의 : Tel. 02-780-2765, E-mail, ortho@koa.or.kr

회원동정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병근 회원 (박애병원) 빙부상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3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3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3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1. 2024년도 서울건국대학교병원 족부족관절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족부족관절 2명
- 문의 : Tel. 010-9485-3059, E-mail. jungfoot@hanmail.net (지도교수: 정홍근)

2. SNU서울병원 유급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분야 4명
- 문의 : Tel. 010-5766-7310, E-mail. sseoulmanager@gmail.com

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 하지외상 임상강사 3명
- 문의 : Tel. 010-7231-5384, E-mail. k1004herald@naver.com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번호	성함	소속	모금 날짜	입금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5월 25일	10,000원	810,000원
2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5월 30일	50,000원	500,000원
				현재 모금액 : 450,750,000원	

▶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전남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4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5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6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7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교실	건국대학교병원	12,000,000원
8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9	경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북대학교(3년간 3천만원 약정)	10,000,000원
10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1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10,000,000원
12	대한척추종양학회	대한척추종양학회	10,000,000원
13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4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5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6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중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손부홍 회원	(구)손부홍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8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9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함	소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나의 그날

이덕용 자문위원님
(서울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장 제29대 역임)

#1

또 그 이야기. 해마다 6월의 그날이 오면 마스크가 떠드는데 이젠 그것도 시들한 것 같다. 간혹 자문위원회에서 그날이 화제에 오르면 마주 앉은 고김익동선생과 눈빛으로 교감하곤 했는데 이젠 그것도 옛말이다. 우리 겨레 모두가 겪었을 그날이 요즘 자주 떠오르는 것은 나이 탓일까요. 그러나 가물거리는 기억 더는 미룰 수 없기에 더듬어봅니다.

참고:

- 1. This Kind of War T.R. Ferenbach
누런 깐지 paper back의 pocket book. 오래전에 읽었는데 책이 낡아서 버렸다. 아쉽다. 그런데 얼마전 조태준선생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지않는가. 지금도 available하면 일독을 권하고싶다.
- 2. 朝鮮戰爭 兒島襄 Kojima Noboru
물론 일어난데 위 책등을 참고로 극명하게 서술한것 같다.
- 3.You Tube 한국전쟁
올해초 뒀었지요.

그날 일요일 상도동에 살던 나는 아침부터 한강다리 아래에서 보트놀이를 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니 다리 위를 트럭에 탄 군인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군가를 부르며 시내 쪽으로 건너갔다. 영문도 모른채 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월요일 동송동 학교에 가니 YAK기가 뜨고, 오후에는 멀리 미아리 쪽에서 대포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수업은 파장이 되고 말았다. 수요일 새벽 귀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다.

#2

그리고 사흘간 우리 동네 위를 오가는 총격전속에 우리는 강북에서 피난 오신 작은 고모부님 내외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쓴 채 꿈쩍을 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집 바로 옆방에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한편, 서울은 28일 수요일 함락되고, 29일 MacArthur가 날아와 영등포교외 한강변 언덕에 서서 인천상륙작전의 영감을 얻는다. 인민군은 한강을 도강하고도 사흘간 머뭇거렸는데, 이는 춘천 쪽 인민군의 합류가 국군 6사단의 항전으로 지연됐기 때문으로 판명된다.

우리는 피난길에 나섰다. 상도동 남쪽고개에 서니 갈대밭이 멀리 관악산까지 이어진다. 가다가 쉬었다. 아버님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뭘 먹고 어디서 잔단 말이나” 하셔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왔다.

7월 초 나는 집을 뛰쳐나왔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다. 평범한 mamma boy인 내가. 세상은 이미 그들의 것. 난세다. 한강을 나룻배로 건너 마차버스를 타고 을지로6가 작은아버님한테 갔다. 이미 식량난으로 하루 세끼 멀건 흰죽, 몸도 숨길 겸 다시 화양리 할아버님한테 갔다.

한편, 7월5일 Task Force Smith는 오산북방 죽미령에 포진한다.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에게 그들이 포문을 연 것은 아침 8시16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순간이다. Another War. This Kind of War. 우리로서는 미군참전.

여기서 나는 오래 전임에도 잊혀지지 않는, 아마도 This Kind of War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날저녁 막사에 들어서는 Smith의 그림자가 ‘grotesque’하게 천막에 비쳤다. ‘How bad was it?’. ‘Very bad’. 나는 이 짙막한, 그러나 극적인 묘사가 어찌면 당시 이 전쟁을 누볐던 중군기자 ‘Marguerite’ Higgins의 report가 아니었나 싶었다.- 금발에 oversized fatigue(야전작업복)의 소매를 말아 올리고 다녔던 그녀. 9.28 수복 후 어느 ‘Indian summer’day 그녀는 청와대뜰에서 이승만대통령과 면담한다. 연초 You Tube에

#3

그녀의 KBS스페셜 재방이 있었다.

MacArthur는 Smith의 패전기록을 ‘아니다. 그들은 여섯 시간이나 적의 진격을 막아 우리에게 시간을 준 승리의 전투였다.’고 했다나오, 실제로 부산에 상륙한 William F. Dean 소장(전에 그는 John R. Hodge 중장의 군정시절 민정부장인가를 해서 나도 시내에서 그의 jeep차를 본일이 있다.) 이 이끄는 미 24사단은 대전까지 올라가 적을 맞게 된다. 결국 Dean 소장은 포로가 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 상향선 오산지나, 당시 국도 1번 죽미령에 상응하는 지점 오른쪽에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절토면에 동판이 붙어있었다.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간다.

9.15 인천상륙작전, 9.18 서울수복. 나는 다시 작은아버님덕으로 내려왔다. 그는 일제 경성제대출신으로(소아과 최한웅교수와 동기) 개업하고 계셨는데 애네들이 후퇴할 때 끌려가시다가 공습으로 대열이 흩어질 때 도망치셨다한다. 얼마 후 그는 공군에 입대하게 된다.

이제는 복진통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는 아직 불길이 가시지 않고 생전 처음 보는 시체가 텅구는 거리를 쏘다니다가 퇴계로입구에서 막 입성한 한국해병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경을 끼고 제법 인테리같이 생긴 병사한테 다가가 ‘아저씨, 해병대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학생, 가만있어도 잡으로 와’.

얼마 후 거리에는 해병대 간부후보생 모집광고가 나붙었다. 작은아버님한테 졸라서 이철원 공보처장과 정일형 중구출신 국회 의원 댁으로 찾아가 추천서를 받아냈다.

입대는 한 보름쯤 후라 또 거리를 어슬렁거리는데, 을지로2가 한 건물에 ‘연락장교단본부’라는 간판이 걸려있었다. 이걸 또 뭐지? 건물 앞 게시판에는 ‘연락장교 모집. 집합장소 명동성당뒤 계성학교. 시일 10월xx일 12시’. 아 오늘, 지금이 12시 잔아. 우선 거기 가봐야지. 가보니 일단의 애들이 응성거리고 있다. 이걸 어쩌다 머뭇거

#4

리고있는데 '덕용아. 빨리 이리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한용철이다, 나는 얼떨결에 얼른 거기로 뛰어 들었다. (중학 교동창 고한용철군은 훗날 서울대병원장, 삼성의료원장 역임)

저녁 때 각자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내일아침까지 돌아오라고 내보내 줬데다. 상도동집까지 갈 순 없고 가까운 후암동 큰 고 모부님한테 갔다. '난 해병대 갈 몸인데.....'. 고모부가 타일러주셨다. '넌 학생이야. 이 전쟁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갈 사람이야, 연락장교로 가서 영어나 배워둬.'

Liaison Officer. 기초훈련 좀 하고 임관됐다. 한 달이 되자 첫 봉급이 나왔다. 3만3천원. 당시 유행하는 미군장교 Trench Coat 에 Carbon Helmet, Boots, Staff Bag, 가죽장갑, 완전무장? 하고 명동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이면에 '부모님 상서'....유언장이다. 그런데 보낼 방법이 있어야지. 결국 이후 내내 몸에 지니고 다녔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됐다. 통일은 물건너가고 이제는 후퇴다. 우리는 1.4후퇴에 앞서 육군본부따라 대구로 갔다. 짐을 메고 왕십리역으로 행진해 가는데, 을지로6가 지날 때 나는 대열에서 벗어나 작은아버님댁에 달려갔다. 아주머님한테 숨 가쁘게 '나 대구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한마디 던지고는 허덕거리고 대열에 복귀했다. 어떻게 전하지? 우리는 화물열차 쌀가마니 위에 올라타 중앙선으로 꼬박 열흘 만에 대구에 도착, 향교에 수용됐다.

그해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Walker 미8군사령관이 12월23일 순직합니다. 어떤 마스크는 '경치 좋은 언덕'에서 사망했으니까 그 자리가 Walker Hill이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위급한 전황에서 UN군서부전선 총사령관이 MSR (Main Supply Rout)을 멀리 벗어나, 당시 길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경치 좋은 언덕에서? 그 장소를 나는 압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다 보면 철도건널목이 있지요, 지금은 상계동지하도로를 올라오면서 서쪽 100m 지점에 그 건물목

#5

이 보이더군요. 좀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무슨 골프장.

당시 거기는 길이 S자로 꼬부라지고 길을 도자로 넓혀 그 벌건 토사가 빗물에 흘러내려 온통 진흙탕. 밀려드는 Jeep, Truck 들은 바퀴가 빠져 공전하고, Notorious Bottleneck, 지금도 내 눈에 선 합니다. Kojima는 이렇게 증언한다. '의정부 남방 5km (실은 500m), 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워 쉽게 slip 한다.' 장군의 가방에는 전선의 아들에게 줄 Xmas 선물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뿐이라 그해 12월은. 흑한의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미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의 갈퀴를 벗어나려고 사투를 버린다. 'Retreat? Hell, We are just advancing in another direction.' Commanding General Oliver P. Smith. 그때 TIME지 Cover에 낫았던 것 같다. 가톨릭대외과 고이용각교수는 그때 거기 계셨다 한다. '후퇴'하다 장진호 언 바닥에 쓰러졌는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하더라, 스르르.... 지나가던 미군에게 건어차이기 전까지는.

한편, 대구 향교의 우리는 하나씩 팔려 나갔다. 고김영조선생은 '응. 나는 타잎 치는 사람 손들어하길래 손들었더니 육군본부로 보내주데.'하셨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지명해서 팔려나갔다. 나는 17연대. 총주. 트럭 쌀가마니 위에 올라타고 살을 여미는 삭풍(朔風)속에 NML(No Man's Land)를 달려간 총주는 텅 빈 초가집 마을. 그중 한 기와집, 2대대장한테 신고했다. 나는 그의 옆방에 선임하사와 운전수와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하루는 마당에 인기척이 들렸다. '군수장교 xx대위 보고합니다. 오늘 소 한 마리당 3만5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순간 옆방 창문이 후다닥 열리더니 투다닥 갈기는 소리. '야 이xx야. 어제는 3만원인데 오늘은 왜 3만5천원이야.' 요즘 식사는 흰밥에 소고기국과 소고기반찬, 야채는 일절 없다. 그게 하루 세끼, 매일같이 똑같다. 그러면 대대가 한 끼에 한 마리씩 하루 세 마리, 3개대대와 연대본부면 곱하기 4, 한 달이면 곱하기 30이라.....

#6

총주에는 미 X(십)군단 사령부가 머물고 있어 우리는 그 경비임무 겸 재편성(전투에서 손실된 병력을 신병으로 보충하고 훈련하여 전투력을 회복하는 것)중이었다.

17연대는 '사변'전 삼각지 (현 전쟁기념관자리)에 있었지. "수도를 방위하는 17의연대 수도를 방위하는....". 선임하사가 말했다. 그후 웅진반도 38선에서 북과 티격태격하다 '사변'이 나자 철수, 지난여름 대구엽 안강, 기계에서 사투,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에 한국육군으로는 유일하게 한국해병대와 함께 참여, 그리고 38선 이북 연천을 거쳐 이리 왔노라고, 백인엽 전연대장은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젓뜨기 떴다 하면 다들 기었다고 했다. '이xx', '저xx'는 평양망나니 사투리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연대의 공통어였다.

손바닥만 한 총주거리에서 나는 별 셋 Jeep에 종종 경례했다. 동부전선총사령관 Almond장군이였다. 미제1해병사단과 우리17연대 모두 그의 휘하다. 서부 Walker의 후임자는 Mathew Ridgway, 이어 James van Fleet.

이동이다. 한 달 만에. 포항으로. 아마 문경새재를 건넜을 거다. 포항 beach에는 흥남에서 사단과 함께 재전개(redeploy)한 U.S.Marine Air Group 33, 우리는 그 경비 업무다.

하루는 한 Tent에 들렀다. Can맥주를 마시고 있던 그가 하나를 권했다. 한입을 대니 아, 쓰다. 'How old are you?'. 'Nineteen.'. 그가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그는 "Twentyseven." 어른이다. MIT를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둘 다 중위, 내 Tent 내에서는 가마니 깔고 기거하는 신세. 일주일 만에 Tank Boots와 Wool Socks를 벗었더니 오른발 발가락사이가 허영게 부풀러 저 있었다. 이후 나는 두고두고 그놈의 무좀에 시달렸다.

그러자 또 이동이다. MacArthur는 'Constant Maneuver'라고 자랑했다. 초저녁 이동의 복새통에 뛰어다니다 Tent의 밧줄에 걸려 넘어졌다. 금방 왼손이 부어오르는데 아프다. 대대의무대에 갔더니

#7

빨간 머큐로를 발라준다. 아픈 팔을 움켜쥐고 밤새 달려 대백산맥기슭의 한 산간마을에 닿았다. 공비토벌이다.

한약방(당시에는 이렇게 불렀다.)에 가니 연필만 한 작대기로 내 손바닥을 마구 비벼 구멍을 내고는 -와 아프다- 깻잎에 밀가루 반죽을 발라서 내손에 대고 거즈를 감는다. 신기하게 통증은 차츰 가셨다. 이때쯤 일게다. 이동할 때는 도요다트럭 타고 경주 구분 사이사이를 누비고 흙먼지 날리면서 마구 달리기도 했다. 영천에 갔을 때다. 마침 친척 아저씨가 철도연대장으로 와 계셨다. 아버님 어머님이 부산에 피난 와 계신다고 알려주셨다.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저씨가 '군인이.....'하고 호통치셨지만 울었다.

'대대장님, 저 해병대 가겠습니다.' 쿠양하고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이 xx야. 너 육군장교야.' 그날밤 '도라지' 상표의 투명한 국산 '위스키'를 마셨다, 아침에 눈뜨고 보니 내 양쪽에 엷저녁 작부들, 셋이 나란히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동, 이때는 아마 풍기 쪽 죽령고개를 넘었다. 제천고개도, 고개를 뺄뺄 뒤를 쳐다보니 후속차량들이 별하늘 높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드디어 38선 이북 철의 삼각지대 철원이다. 내일아침 고지에 오른다. 배낭 담요 따위는 다 두고 간다. 대대장이 물었다. '이중위는 어떻게갈래?' '뭐 올라가야지요.'. '아니다. 넌 여기 있어.' 그가 갖고 있던 Infantry Field Manual을 건네주었다, Field=야전, Approach=공격로, Engage=교전, Charge=돌격, Secure=확보, KIA=Killed in Action 전사,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밀천인 일어 곤사이수영화사전으로는 맥을 못 춘다.

결국 나도 뒤따라 고지로 올라갔다. 물론 늘 갖고 다니는 Carbin총을 들고, 호를 파고 가마니를 바닥에 깔고 또 가마니로 위를 가렸다. 중대장이 점검차 가마니를 제쳤다. 내려다보는 시선과 올려다보는 시선이 마주쳤다. 한참을 말없이. 중대장들은 모두 8기생 (JP와

#8

동기).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 병사들은 모닥불을 피웠다. 6월의 고지는 추웠습니다. 나는 고지를 내려왔다. 조선일보 2012년6월22일 기사에 발굴된 유골과 구멍 뚫린 철모의 사진과 함께 이런 게 실려있다. '1951년6월26일 국군2사단17연대는 732고지 탈환을 위한 총공세를 가했다. 2대대 7중대는 중공군 인해전술에 맞서 사흘간.....'.

고지아래에는 시신들이 내려왔다. 트럭에 겹으로 쌓인 유해에 걸터앉았다. 덜거덕거리며 달리는 내내 콧손이 와닿았다. 철의 삼각지대 또한쪽고리 금화쪽인가. 심산유곡 녹음이 해를 가리고 넉넉한 개울이 6월의 더위를 잊게 한다. 모두들 깨끗한 개울물을 마시고 이뉘고 세수하고 아침밥 해 먹었다. 개울을 거슬러가다 멈췄다. 철모 쓴 해골들이 널려있었다. 개울을 가로질은 철초망은 끊겨있고, 아 지난해의 '그날'이 여기 고스란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끊겨진 '38선'을 지나 '북진'했다. 이윽고 시야가 트이자 커다란 'Blue Star' 깃발이 펄럭거린다. 6사단이다.

고지를 내려오니 미군 105mm Howitzer Battery, 아 Sugar, 아 달다. Milk, Corn Flake. 게걸스럽게 먹어댔다. Tent옆에는 금발에 앳된 얼굴의 두 미군이 살아있는 듯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멀리 고향의 엄마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밤새 쓰아대는 포소리는 내 잠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한 번은 내가 탄 Jeep와 한용철이 탄 Jeep가 스쳐 지나갔다. 서로 '야'하고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며 댔다. 전선의 만남. 어떤 개인날 한 미군병사가 Hay Stack위에 엮드려 팔을 고이고는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What part of the States are you from?' 'Georgia.'. 'Atlanta, Georgia?'. 'Oh, you know that?'. 전선의 망중한. Jeep차를 타고 가다 총돌순간 엽자리에 앉은 내 몸이 봉 공중에 뿔뿔이 흩날리며 머리를 박았다. 철모는 날아가고, 가까운 MASH (미

#9

군야전병원)에서 이마를 꿰맸다. 전선에도 교통사고.

어느 두메산골을 지나 산마루에 서니, 북한강이 눈앞에 흐른다. 중대장이 정찰을 간다고 하기에 나도 그의 Jeep에 올라탔다.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니 가평. 그 초가집 마을이 온통 불타고 있었다. 오늘아침 미군이 점령하고 막 언덕 넘어 진격해갔다고 한다. 우리는 경춘가도를 거꾸로 좌로 서울방향으로 꺾었다. 시체들이 널려있는 가운데 국군병사들이 지뢰탐지기로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진격' 해 오고 있다. '야 이xx들이 집어치워라. 우리가 지금 다 밟고 왔다.'

2사단 사단마크 공모가 있었다. 푸른 바다와 흰 하늘. 우리가 속한 미 X군단과 같은 배색. 그 위에 사단별층 노도(怒濤)가 떠오른다. 콩나물같이. 그것은 곧 2의 표현이다. 됐다. 아 그런데 동심원을 그리자니 컴파스가 없다. 머뭇거리다가 실기하고 말았다. 사단본부로 전출되었다. 준비하게 늘어선 천막촌. 와 이거야 명동이잖아. 마음이 놓였다. 사단예하 연락장교들이 다 한데 모였다. 고문관들도. 어느 날밤 따따따따 따따따따 총소리가 요란한데 '포위됐다'하는 고함소리가 들린다. '도망갈때 나 좀 깨워줘라' 하고는 나는 다시 잠들어 버렸다. 아침에 눈뜨고 밖에 나가보니 희한했다. 그 많던 천막들이 모조리 땅바닥에 엎드려있다. 사단장, 미군고문관들, 그리고 우리 들것, 셋만 남기고, 연습이었다. 하루는 내가 철없는 불평을 했던 모양이다. 광하고 동료의 주먹이 날아왔다. '정신차렷' 인사동의 천도교 교주 최덕신이 별을 달고 한 미군에게 다가갔다. 내가 통역을 해주려고 끼어들려니까 '통역 필요 없어.' 매몰차다. 내 알량한 자존심은?. 내 다시는 남의 통역노릇 하나 바라. 얼마 후 그가 중국을 거쳐 북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들렸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억도 없지만 나는 육군본부로 전출 되었다. 나는 고문관 Captain C의 jeep에 몸을 실었다. 2차 대전 격전지 Guadalcanal의 Veteran. 그때도 Captain, 지금도 Captain- 아마도 Reserve에 있었겠지만- 반골기질이 역력해 보였다. 한참을 달려

#10

의정부 지나자 건널목, 아 그지점이다. 이제는 마르고 한적하다. 초가을 푸른 하늘아래 북한산이 그 웅장한 전모를 드러낸다. 갈대밭 저 멀리 미아리고개가 보인다. 이제 지옥 같은 전선은 벗어났구나. 우리는 갈대밭을 거쳐 텅 빈 서울을 관통했다. 그때는 나는 몰랐습니다. 을지로6가 작은아버님댁에 할아버님이 홀로 생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다. 지난 1.4후퇴때 작은 아주머니는 어린 삼 남매를 데리고 대구 친정으로 피난 가시고, 할아버님은 거동을 못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남으셨다.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뒷마당 언 땅에 묻으셨다.

계속 한참 달리니 길가에 물이 분출하는 곳이 보였다. 지붕은 날아가고 옥조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다. 아 온양 온천이구나. 우리는 주인 없는 노천온천에서 실로 오랜만에 전진戰塵(전쟁의때)을 밀었다.

다시 한참을 달리니 미군 MP들이 서있다. 'Which way is to Taegu?'. 'Either way, sir.'. 초가집 마을에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간다. 아 대한민국이 거기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대구, 그리고 부산. 간단 말도 없이 전쟁터로 사라졌던 외아들은 이제 부모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4후퇴때 해군정훈음악대에 들어갔던 누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인천에서 배로 피난 오신 것이다. 이제, 나는 RTC 철도수송대에 들어가 대개는 미군과 짝을 지어 지방역을 돌게 되었다. 울산역. 갈대밭 넘어 멀리 바다가 보인다. 제천. Completely Flat. 홀로 남은 2층누각의 기둥이 인상적이었다. 여수. 주말이면 배로 부산을 오가며 부모님을 뵈고 와 좋았다. 디도해는 아름다웠다. 하루는 부닷가에 앉아 징병신체검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놈이 낙제했다고 희희낙락거리며 다가온다, 이놈 봐라 멀정하잔아. 순간 옆에 있던 삼자루로 그 놈의 종아리를 후려갈겼다. 삼자루가 부러졌다.

남원에 갔다. 미군장교와 짝을 지어 백선엽장군이 이끄는 Task Force Paik이 송요찬장군의 수도사단을 필두로 여수에 상륙. 남원

#11

으로 올라와 지리산 공비토벌을 하는 작전이다. 하루는 빨치산두목의 여자라는 포로가 역사로 끌려왔다. 남루한 매무새는 그녀의 단정한 용모를 감추지는 못했다. 모든 것을 단념한 듯 차분했다. 어느 동네 젊은 아낙네와 다를 바가 없었다.

송정리역. 화물차에서 포로석방으로 풀려난 반공포로들이 뛰어내렸다. 그중에 빨갱이가 섞였던 모양이다. 죽어라고 밟아댔는데. 때는 지금 미국대통령선거에서 'I Like like' Eisenhower가 'I shall go to Korea' Catch Phrase를 내걸고 휴전을 밀어붙이는데, 힘없는 나라 Syngman Rhee는 이에 맞서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외친다. 거리에는 여학생들이 머리띠 둘러매고 들어놓는다, 드디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로 휴전의 판을 깨려 든다. 다급해진 Eisenhower의 목을 졸라 얻어낸 것은 한미방위조약. '국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하셨는데, 네 우리는 두고두고 그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이박사의 동상을 끌어내린 사람이나 이박사를 망명으로 내몬 사람이나 다 함께. 이박사를 종미주구라고 한 사람이나 분단의 원흉이라고 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그런데 van Fleet 미8군사령관(그는 외아들을 북한하늘에서 잃었다)은 LIFE지 기고문에서 이박사를 이렇게 극찬했지요. 'He is worth the gold of his weight.'. 전후일본의 명재상 요시다 시게루는 '리소반의 손톱의 때나 달여마셔라.'고 내뱉었다지요, 심지어 미국이 한때 그를 실각시키는 쿠데타까지 검토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어느 날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다. 긴 터널을 벗어나 열차는 힘없이 기어가고 있었다. 눈앞에 옛 친구의 얼굴이 비친다. 중학교 동창으로 서울대의예과로 갔던 친구. 집 밖에 나와 쪼그리고 앉아 맥없이 곤로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넌 군대 안 갔구나. 왜, 부러우냐? 죽을 고생을 한 나는 바보였단 말이나? 그런데 그 스마트한 한용철이도 나와 같은 고생을 했거든. 사실 전시에 군대 가기는 쉬워도 안 가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학창복귀'. 그리고 전란의 결원을 보충할 서울의대의 편입시험. 보니까 'double', 한용철 이도 'double', 아쉬울게 없세라. 한발 늦게 5월에 등교하고 두발 늦게 6월에 계급장을 땀다.

부산대신동 교사는 허름한 목조창고. 둘로 나눠 전시연합대학이라 수도여의대와 합동강의. 이제는 'os tibialis, muscus.....' 그런데 틈만 나면 길 건너 '파도' 다방에 가서 그리스 조각같이 생긴 레지가 틀어주는 Patti Page의 'I went to your wedding'을 듣고 또 들었다. 학생기질의 부활인가요 전시의 초라한 낭만인가요?. 2학년 1학기에는 한문식선생님이 와과학총론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도. "이-벌의 부산정거장....." 4학년2학기에는 개업하고 계시던 연세대 문병기선생님이 나오셔서 정형 외과학총론을 강의해 주셨다.

드디어 휴전이다. 피눈물 나는 전쟁의 끝은 38선의 데자부 휴전선. Kojima는 선우아무개라는 평양출신의 사나이를 내세워 절규한다.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어느 날인가 포항의 검은 모래사장에 홀로 다시 섰다. 지난날의 소요는 파도가 쓸어갔는지 흔적도 없다. 포항시가지가 지척이고 뒤의 비행장은 텅 비었다. 다부동, 안강, 기계를 잇는 마지노선 Nakdong Perimeter의 끝자락, 형산강하구의 개울 같은 물줄기. 그 저쪽은 저쪽, 이쪽은 이쪽.

그때 해병대에 갔던 물리대 옛 친구를 다시 만났다. '응, 우리, 거이 다 죽었어. 난 포병이니까 살았나 봐.'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수근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 발생한 사례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발견되어 건이전술 시행된 사건으로, 신청인은 의료진의 부족한 술기로 인하여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목관절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60대)은 2021년 3월 중순 넘어지고 나서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진단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받은 뒤 3월 말 퇴원하여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였음. 퇴원 후 신청인은 운동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손목 x-ray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타 병원과 동시에 받으며 x-ray 검사 추시함.

2021년 6월 신청인은 "갑자기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안 되며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며 장무지 신전건 파열로 타 병원에서 수술 예정임을 피신청인병원에 알렸으며 6월 말 상급병원에서 우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 및 건이전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2021년 10월 발행된 후유장애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우측 손목관절 기능의 영구장해(운동 가능 범위- 굴곡 50도, 신전 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 진단을 받았음.

[분쟁 쟁점]

환자 측: 우측 손목 골절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의 술기 미흡으로 금속판의 나사가 너무 길게 박혀 엄지 인대를 스치다가 인대가 끊어져 타 병원에서 재수술받았고 장애가 남게 되었음.

병원 측: 환자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요골의 심한 관절면내 분쇄골절 소견으로 분쇄된 골편을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못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수술 직후 촬영한 x-ray 상 나사못의 이상소견은 찾을 수 없었음. 현재 환자가 주장하는 후유장애 진단서 피해내용은 인대파열만으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위요골 관절면내 심한 분쇄골절에 의한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한 내용임.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환자는 낙상으로 인한 손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음. 진찰 및 x-ray,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로 진단되어 관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수장부에서 접근하여 요골의 전면에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을 시행하였음. 신청인의 골절은 원위 요골의 불안정성 골절이므로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병원의 결정은 적절하였음(참고문헌 1). 수술 직후 X-ray 상 나사못이 금속판 부착부의 반대편 피질골 관통이 의심됨.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수술 후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외래에 내원하여 X-ray 검사와 수술 부위 소독, 봉합사 제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바,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됨. 피신청인병원 기록에 의하면 “6월 갑자기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안 되며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함.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의심되며 타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라고 함.

3. 설명의 적절성

수술 당일 작성된 수술동의서에 병명, 수술명, 수술의 필요성, 주의사항 및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수지 신전건 파열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과 설명의무 이행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인과관계

좌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및 현재 우측 손목 상태의 원인

수술 후 3달 경과 후 타 병원에서 시행한 CT상 골절 원위부에 삽입한 나사못 일부가 반대 측 피질골을 관통한 것이 관찰되고 있음. 그러므로 본건의 수술 시 다소 긴 나사못을 삽입한 것으로 생각됨.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건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 시 0.4%, 수술적 치료 시 0.8%의 빈도로 나타남(참고문헌 2). 특히 본 건에서 발생한 장무지 신전건 파열은 금속판 및 나사못으로 고정 시 2.1%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참고문헌 3), 그 원인으로는 1) 골편에 의한 신전건의 자극 2) 골편 사이에 신전건의 포착 3) 나사못이나 드릴의 수배부 피질골 관통에 의한 신전건 손상 4) 손목에서 장무지 신전건 통과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좋은 점이 있음(참고문헌 4, 5). 환자의 타 병원 수술기록지 상 손목관절 배부의 제3 구역에서 나사못의 돌출 소견이 있으며 이 부위에서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있어 본 건에서 발생한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은 초기 수술 시 긴 나사못을 삽입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나, 문헌상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발생하는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에는 이외에도 다른 원인도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손목의 상태는 2021년 10월 후유장애 진단서에 따르면 운동범위가 일부 감소되어 있으나 이것은 원위 요골의 관절내 분쇄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본 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음.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 시 긴 나사못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장무지 신전건이 손상을 받아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문헌상 원위 요골 골절 치료 후 발생하는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에는 이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참고문헌 3, 4, 5). 신청인이 호소하는 손목의 상태는 후유장애 진단서에 따르면 운동범위가 일부 감소되어 있으나 이것은 원위 요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므로 본 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음.

[참고문헌]

1.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47
2. White BD et al. Incidence and clinical outcomes of tendon rupture following distal radius fracture. J Hand Surg 2012; 37A: 2035-40
3. Zenke Y et al. Extensor pollicis longus tendon ruptures after the use of volar locking plates for distal radius fractures. Hand Surg 2013; 18: 169-173
4. 대한정형외과학회, 최신의학사,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651
5. Benson EC et al. Two potential cause of EPL rupture after distal radius volar fracture. Clin Orthop Rel Res 2006; 451: 218-22

[조정결과]

본건의 경우 조정 합의됨

[예방 Tip]

원위 요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로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을 수장부에 시행할 경우 나사못이 배측 피질골을 관통하면 신전건 파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수술실 퇴실 전 x ray 검사를 시행하여 나사못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서울 예스병원 병원장)

大公無私

(대공무사: 매우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공직을 추천하는데 원수라고 배제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피하지 않았으니 기황양이야말로 대공무사하다.(外舉不避仇 內舉不避子 祁黃羊可謂 大公無私矣).’ 공자가 사사로움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직 인사를 단행한 기황양을 칭송한 말이다. 그 후로 大公無私(대공무사)는 개인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엄정한 공적 기준을 적용해 일처리를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祁奚(기해)는 字(자)가 黃羊(황양)으로 진나라 대부다. 祁(기) 땅에 식읍을 가지고 있었다. 晉獻侯(진헌후)의 후예로 晉景公(진경공) 厲公(려공) 悼公(도공) 平公(평공) 등 4대를 섬겼다. 진도공이 기황양에게 남양현의 수장 자리에 누가 잘할 것 같냐고 묻자 기황양은 解狐(해호)가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다. 진도공이 놀라며 기황양에게 ‘해호는 원수지간이 아닌가’라며 묻자 기황양은 이렇게 답했다. ‘공께서 누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를 물으셨지, 신의 원수를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진도공은 해호를 남양현장으로 임용 했고 많은 이들이 잘된 인사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후 진도공이 기황양에게 尉(위:군사통수)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다. 그러자 기황양은 祁午(기오)를 추천했다. 진도공이 기오는 기황양의 아들이 아니냐고 묻자 기황양은 이렇게 답했다. ‘공께서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으셨지, 신의 아들을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진도공은 기오를 임용했고 이를 진나라 사람들이 알고 칭송했다. 진도공 때 中軍尉(중군위)를 지냈고 평공이 즉위하자 公族大夫(공족대부)가 되어 원로로서 역할을 했다. 叔向(숙향:양설힐의 字:자)이 范宣子(범선자)에게 잡히자 사리로 잘 설득하여 석방시켰다. (사기 진세가)

晉(진)나라의 羊舌肸(양설직)의 정실부인 소생으로 羊舌赤(양설적), 羊舌肸(양설힐) 형제가 있었다. 그 후 양설직이 부인의 노비

와 상관하여 낳은 서출이 羊舌肸(양설호)다. 양설호는 용모가 뛰어나고 용맹하여 양설적의 어머니가 장차 집안의 재앙이 될 것으로 여겨 걱정하였다. 후에 양설호는 欒黶(난영) 일당과 함께 반역죄에 몰려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이에, 양설적, 양설힐은 그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 불들려 왔다. 이때 대부 樂王黻(낙왕부)는 진평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낙왕부는 평소부터 양설적, 양설힐 형제가 어진 사람이란 걸 알고서 서로 사귄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낙왕부는 양설적, 양설힐 형제가 죄인으로 불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朝門(조문)으로 갔다. 낙왕부가 양설힐 앞에 가서 읍하고 위로한다. ‘그대는 근심 마오. 내 상감께 가서 그대가 풀려나오도록 힘껏 주선하겠소.’ 그러나 양설힐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낙왕부는 도리어 무안해서 얼굴을 붉히고 궁으로 들어갔다. 양설적은 곁에서 동생이 낙왕부의 호의를 무시하는 걸 보고서 꾸짖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형제는 이곳에서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 양설씨는 자손이 끊어지고 만다. 지금 대부 낙왕부는 상감의 총애를 받는 처지며 그의 말이면 상감도 다 들어주시는 판이다. 이럴 때 낙왕부의 호의에 감사하고 그의 힘을 입어 우리가 살아나야만 조상의 대를 이을 수 있지 않나뇨. 그런데 너는 어쩌서 낙왕부의 고마운 호의를 그렇게도 싹 무시해 버렸느냐.’ 그제야 양설힐이 웃고 대답한다. ‘형님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만일 하늘이 우리 형제를 도우신다면 노대부 祁奚(기해)께서 힘써 주실 것입니다. 그까짓 소인놈 낙왕부 따위에게 부탁해서 뭇합니까!’ 양설적이 불평한다. ‘그래도 낙왕부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감 곁을 모시는 사람이다. 너는 노대부 기해를 믿는 모양이지만 그 어른은 이미 벼슬을 내놓고 한가히 계시는 몸이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 우리의 힘이 되어 줄 수 있겠니? 난 네가 말하는 뜻을 알 수 없구나!’ 양설힐이 설명한다. ‘낙왕부는 상감에게 아침하는 것만 압니다. 임금이 옳다고 하시면 그는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임금이 부정하시면 그도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대부 기해는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원수 간이 될지라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엔 평소에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私情(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직하신 노대부 기해께서 어찌 우리 양설씨가 멸족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리 있습니까?’

한편 궁에선 진평공이 조회에 나왔다. 진평공이 낙왕부에게 묻는다. ‘양설호가 난영의 일당이라는 건 익히 들었대마는 그의 형 양설적과 양설힐도 난영과 한 패였던 말인가? 혹 그대는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사실이라도 들은 일이 있는지!’ 이때, 낙왕부는 조금 전에 무안당한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세상에 제일 친한 것은 형제간입니다. 동생이 그런 짓을 했는데 어찌 그 형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마침내 진평공은 잡아 온 자를 다 옥에 가두게 하고 司寇(사구:형벌을 담당하는 벼슬)에게 그들의 죄를 다스리라고 분부했다.

이 때 노대부 기해는 이미 벼슬을 내놓고 祁(기) 땅에서 한가히 늙은 몸을 조섭하고 있었다. 한편, 기해의 아들 기오는 궁에서 벼슬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양설적과 동로 간이어서 서로 절친한 터였다. 기오는 급히 사람을 기움으로 보내어 그 아버지 기해에게 양설적 형제를 구해 달라고 청했다. 아들 기오의 서신을 다 읽고 기해는 크게 놀랐다. 기해는 수레를 타고 밤길을 달려 絳州(강주)성으로 향했다. 기해는 도성에 당도하는 즉시로 正卿(정경)인 范匄(범개 또는 사개: 범문자)를 찾아갔다. 범개가 기해를 황망히 영접하며 묻는다. ‘연만 하신 노대부께서 먼 길을 이렇듯 왕림하셨으니 무슨 가르치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기해가 대답한다. ‘이 늙은이는 우리 진나라 사직의 존망을 위해서 왔소.’ 범개가 크게 놀라 묻는다. ‘사직의 존망에 관한 일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원래 어진 신하는 바로 사직의 柱石(주석)이오. 양설직은 살아생전에 우리 진나라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웠소. 지금 그 아들 양설적과 양설힐은 능히 그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이어받은 어진 신하들이오. 이번에 서자인 양설호가 불초한 짓을 했기로서니 그 집안을 모조리 죽인다면 어찌 아깝지 않으리요. 옛날에 郤芮(극예)는 반역자였지만 그 아들 郤缺(극결)은 大官(대관)을 지냈소. 아버의 죄도 자식에게 미치지 않거늘 항차 형제간 사이의 일이야 더 말할 것 있으리요. 그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이는 옥과 돌을 동시에 태워버리는 짓이오. 어찌 이 나라 사직이 위태롭지 않겠소?’ 범개가 일어나 자리를 피하며 대답한다. ‘참으로 노대부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감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노대부

와 함께 상감에 가서 이 일을 아뢰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진평 공에게 아뢰다. ‘양설적 형제는 결코 그들의 서제인 양설호와와는 인품부터가 다릅니다. 양설적과 양설힐 두 형제만은 난시 일당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양설씨가 이 나라에 끼친 공로와 장차 이 나라에 끼칠 수 있는 공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평공은 그제야 크게 깨닫고 즉시 양설적과 그 동생 양설힐을 석방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지난날의 벼슬을 줬다. 양설적과 양설힐은 풀려 나오자 바로 궁에 가서 진평공에게 謝恩(사은)했다. 궁에서 물러나오며 양설적이 그 동생 양설힐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번에 살아난 것은 다 노대부 기해 덕분이다. 그러니 그 어른께도 인사를 가자.’ 양설힐이 대답한다. ‘노대부 기해를 찾아가 뵈울 것 없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애쓰진 않았습니니다. 그러니 가서 무엇을 감사하던 말입니까?’ 말을 마치자 양설힐은 혼자서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양설적은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기해를 뵈오려고 기오의 집으로 갔다. 기오가 양설적에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상감을 뵈은 뒤 즉시 기읍 땅으로 돌아가셨지요. 내 집엔 들르시지도 않았소.’ 양설적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 이 탄식했다. ‘기해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분이이다. 나는 내 동생 힐의 높은 식견만 못하구네!’

비슷한 내용이 韓非子(한비자) 外儲說 左下(외자설 좌하)에도 나온다. 中牟(중모)현령이 비어 있었기에 진나라 평공이 趙武(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우리나라 진나라의 두 다리라 같이 믿고 있는 곳이고 요충지 邯鄲(한단)으로 가는 관문이요. 과인은 그곳에 훌륭한 현령을 두고 싶소. 누구를 시키면 좋겠소?’ 邢伯子(형백자)가 좋겠습니다.’ 평공이 말하였다.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조무가 말했다. ‘저는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원한을 들이지 않습니다.’ 평공이 또 물었다. ‘中府(중부:군주의 재물을 관리하는 곳)의 장관으로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소?’ ‘신의 아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친척 이외의 사람을 추천할 때는 원수라도 피하지 않고 친척 중에서 추천할 때는 아들도 피하지 않는다. 조무가 추천한 관리는 46명인데 조무가 죽자 한 사람도 조문을 온 사람이 없었다. 이와 같이 그는 사사로운 은혜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평공이 叔向(숙향:양설힐의 자)에게 물었다. ‘신하들 중에 누가 가장 현명하오?’ ‘조무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라 그리 말하는 것이오?’ 숙향이 말하였다. ‘조무는 서 있을 때는 마치 옷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약했고 말할 때는 마치 입을 벌릴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놀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거한 인사 수 십 명은 모두 그가 추천한 의도대로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나라에서도 그들을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조무는 평생 동안 자기 집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는 자식의 장래를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가 현명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호는 자신의 원수를 簡主(간주:조간자 양, 조무의 아들)에게 추천하여 재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그 원수가 되는 인물은 고맙게도 해호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으로 알고 그 집을 찾아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해호는 활을 쏘아 그가 오는 것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를 추천한 것은 공무상 그렇게 한 것이고 네가 적임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를 원수로 알고 있는 것은 내 개인 문제이다. 물론 그러한 개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를 추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사로운 원한을 조정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秦(진)나라 말 유방과 항우가 서로 싸울 때 武將(무장) 陳平(진평:~BC78)은 지략이 출중한 인물이었다. 원래 그는 魏(위)나라에 있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하자 楚(초)나라의 항우에게로 갔다. 거기서도 중용되지 않자 다시 漢(한)나라로 유방을 찾아가다. 그의 비범함을 눈여겨본 유방은 군을 감독하는 도위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장수들이 들고일어났다. ‘진평은 걸만 그럴싸할 뿐, 속은 썩은 인물입니다. 전에 고향에 있을 때 제 형수와 密通(밀통)을 했을뿐더러 한때는 위나라를 섬겼지만 인정을 못 받아 초의 항우에게로 옮겨가고, 그곳에서도 중용되지 못하자 도망쳐 우리 한나라로 굴러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그런 자에게 군의 요직을 주시니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자는 장수들로부터 뒷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라며 간언 했다. 마음이 흔들린

유방은 진평을 추천한 측근 魏無知(위무지)를 불러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추천하였는가?’라고 추궁했다. 위무지는 ‘신이 말씀드린 것은 그의 능력이고, 대왕께서 묻고 있는 것은 그의 행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는 초나라와 백척간두에서, 사느냐 죽느냐 맞서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지모가 뛰어난 자를 발탁해 나라를 살리면 됐지, 형수나 뒷돈이 그리 중하던 말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유방이 이번에는 진평을 불러 ‘위나라, 초나라를 섬길 때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한나라로 온 것 아닌가?’하고 따졌다. 그러자 진평은 ‘위왕은 저의 계책을 써주지 않았고 초나라 항왕은 남을 믿지 못해 항씨 아니면 妻族(처족)들만을 중용했습니다. 신이 듣건대 항왕은 두루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기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또 뒷돈을 받은 것은 신이 혈혈단신 수중에 무일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계책이 쓸 만하면 저를 채택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받았던 돈은 모두 되돌려 놓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방은 그의 솔직함에 감탄해 후히 상을 내리고 함께 수레를 타고 다니며 장수들을 감독하는 護軍中尉(호군중위)로 중용하고 감히 누구라도 불평을 하지 못했다. 진평은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워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고 훗날 승상(丞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사기 진승상세가)

魏明帝(위명제:조조의 손자이며 위문제 조비의 아들 조예)는 이부랑 許允(허윤)이 임용 차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과 가까운 자들만 기용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죄를 물으려고 했다. 그가 끌려갈 때, 부인 완씨는 이렇게 당부하였다. ‘심문을 받을 때 단지 도리로 설득하기만 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서 울고불고하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 후 죽을 꿇어놓고 기다렸다. 허윤은 과연 금방 집으로 돌아왔다. 원래, 허윤은 위명제에게 심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선발하려면 사람을 잘 알아보고 알맞은 곳에 기용해야 합니다. 제가 저의 고향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기용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직위에 부적합하다면 신이 죄를 받겠습니다.’ 위명제는 그들 관리들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제 역할에 맞는 직위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었다.

잘 되는 곳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인재가 발탁되어 그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공동체가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맞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조건을 따지고 보면 완벽한 도덕군자이면서 실무에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전부터 인간적인 결함보다는 그 사람의 그 주어진 일에 대한 능력을 보고 발탁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또 사회가 건전하고 안정될수록 평판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게 되고, 그런 인재를 사심 없이 공정하게 추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인재에게 믿고 맡기는 지도자가 있게 된다. 필요한 인재를 추천함에 개개인의 이해보다는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즉 大公無私(대공무사)가 건전한 사회의 조건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 권 66, 孝獻帝(효헌제) 建安(건안) 15년에는 曹操(조조)의 명령이 나온다. ‘孟公綽(맹공작)이 초나라와 위나라를 위하여 원로 노릇을 하였더라면 잘하였겠지만, 등나라와 설나라의 대부노릇을 할 수는 없었다. 만약 반드시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선비가 된 이후라야 등용을 할 수 있다면 제환공은 어떻게 세상을 제패하였겠는가? 지금 세상에 벼슬을 입고 높은 뜻을 품고 渭水(위수) 가에서 낚시질하던 姜太公(강태공) 같은 사람이 없겠는가? 또 형수와 간통하고 뇌물을 먹은 陳平(진평)을 황제에게 천거한 魏無知(위무지) 같은 자는 없는가? 그대들은 나를 도와 가려져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밝혀서 천거하는데, 오직 재주만 가지고 천거한다면 내가 그를 기용하겠노라.’

맹공작은 魯(노)나라 大夫(대부)로 청빈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다. 그 청빈함으로 큰 나라의 원로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아주 작은 나라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공자는 논어 헌문편(子曰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에서 말하고 있고 이를 조조가 인용하고 있다.

1. 학생교과서 [근골격의학] 출간안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필수정형외과학”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으며 제2판이 출간된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필수정형외과학”이 그동안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에는 비단 수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척추와 사지의 골다공증, 류마티스 질환,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같은 다양한 내과적 치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명칭을 “근골격 의학” “Textbook of Musculoskeletal Medici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학이 여러 방면에서 발달하는 가운데 정형외과학의 발달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의공학과 연관된 재료학과 각종 기기의 개발, 내시경수술 등 새로운 수술 기법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빠른 발전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골격 의학”은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형외과학 교과서를 한두 사람이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특히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전공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여 이를 편집하여 2년 동안의 꾸준한 준비를 거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 의학”이 외국의 우수한 교과서들에 비해 손색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보완과 개선을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독자들의 질책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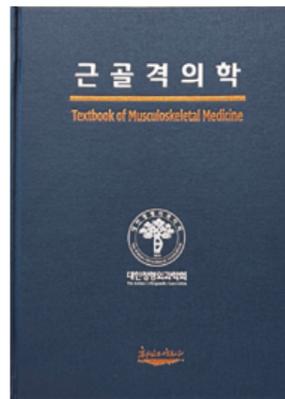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저자들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주신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원고를 정리한 편찬위원회 간사인 이화대학교 유재두 교수와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신의학사 엄철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편찬위원장 이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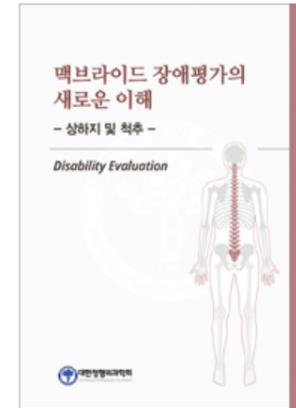
■ 주요분야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근골격계 영상의학, 재활, 골관절의 감염, 관절염, 신경, 근육 및 혈관 질환, 척추 질환, 견관절, 수부 및 주관절, 고관절 병변, 슬관절 병변, 족근관절 및 족부병변, 선천성 및 발달성 소아질환, 전신적 질환, 외상, 정형외과적 치료원칙, 중앙, 근골격계 통증관리, 노인의학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80,000원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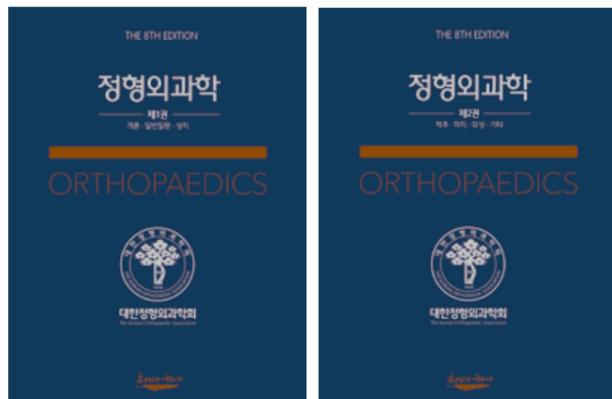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이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2020년 10월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장애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상 조건 외에도 사회적 여러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단지 의학적 기준만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으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판정 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안과 너무 차이가 크면 사회적 저항 또한 증가함으로 개선은 점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에서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는 현재 법원을 비롯한 많은 배상 관련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용하는 경우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장애진단서 발부 시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2020년에 발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에 의하면…….” 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애평가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명입니다. 회원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장애위원회에서 논의 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다음번 개정판 발간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학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여러 정형외과 회원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주실 곳 : 대한정형외과학회 E-MAIL: ortho@koa.or.kr

3.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 가 격 : 5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5. 「장애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 슬로건 |



| 7가지 생활수칙 캠페인 포스터 |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홍보슬로건과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팜플렛 안내



팜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팜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팜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팜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 질환별 팜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 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eyond the Best
조인스®



- 연골보호효과 확인^{1,1}
- 장기투여 효과 확인^{1,2,ii}
-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1,2}

제품요약정보

전문의학품

【제품명】 조인스정20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이 약 1정 중 조인스정 유효성분: 위령선-광루근-하고초30%에탄올건조엑스(40-1)(별규) ...200mg 【효능·효과】 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 【용법·용량】 성인 : 1회 1정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상태 또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환자(감염에 대한 자체 저항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처치를 취해야 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후락) 【제조자】 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단로 149 【판매자】 에스케이케미칼(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011. 3. 21. 개정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Joong Il Kim et al. Efficacy of JOINS on Cartilage Protection in Knee Osteoarthritis: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nee surg relat res, 2017 sep 1;29(3):217-224. 2. 조인스정 의약품 재상사 보고서 (2001.7.10~2005.7.9), Data on file SK 케미칼, [Updated 2005.10.07] 3. 조인스정 허가정보, 의약품안전나라 [Cited 2023.01.20]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i) [조인스정의 4상 임상연구] 1년 시험 연장 참여 동의자의 경우 2년의 RCT 연구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MRI를 이용하여 조인스정과 위약의 연골보호효과를 비교하였음.
ii) 조인스정의 4상 임상 결과 상 2년 장기투여 대상자들, 4년간의 시판후 조사결과 상 6개월 이상 장기투여(184명, 전체의 3.09%) 대상자 포함하였음.

국·내·신·약

시작이 반,

Resyno® OME Inj.

1회 투여로 6개월간 지속되는 무릎관절용 히알루론산 주사제



지속성 향상
Enhanced Longe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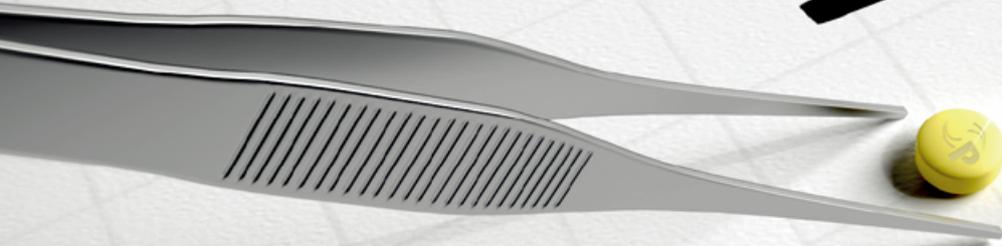
주입감 향상
Easy Procedure

유허작용 향상
Improved Lubrication

레시노원 (주) (다비닐설폰으로 기교경화된 히알루론산 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 나트륨염에 4:1 w/w 혼합된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프리필드사린지(2ml/리터) 중 유효성분: 다비닐설폰으로 기교경화된 히알루론산 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 나트륨염에 4:1 w/w 혼합된(병구) 2.04g (히알루론산 나트륨으로서 40mg) / 첨가제: 염료주사침 [효능·효과] 손관절의 골관절염 [용법·용량] 성인 : 1회, 1관절 손관절염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절염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관절염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2) 무릎관절염 환자 대상 시노비안주를 대조군으로 한 이 약의 임상시험(Y_YD302_003)에서 관절염 투여에 따른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이 약 1차 투여 후 48.42%(46/95 명), 제 2차 투여 후 47.27% (26/55 명)이었다. 중증 이상반응은 부종(이 약 9.47%, 이 약 제 2차 투여 후 7.27%), 홍반 (6.32%, 이 약 제 2차 투여 후 3.64%), 통증 (이 약 3.16%, 이 약 제 2차 투여 후 12.73%)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후 7일 이상 지속된 주사부위 이상반응은 통증 5.26%, 열감 3.16%, 부종(이 약 1.05% 있었으며,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14일 이내에 소실되었고, 제 2차 투여 후에는 통증 10.91%, 부종(이 약 5.45%, 열감 3.64%), 홍반 1.82%이었고,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변형성관절염으로 관절염 증상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증상을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약의 투여로 매우 흔하게 국소염증, 홍반 및 종창(swelling)이 나타남으로, 이 약을 관절염에 투여한 후 48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도록 하고, 국소염증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이 약은 관절염 외에 누출되면 통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강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4) 이 약은 숙련된 의사가 투여해야 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주요 주의사항으로 일부 생략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NSAIDs, 마침표를 찍어



급성통증 + 만성통증

- 급성 통증** 열좌, 근육 및 힘줄 통증, 두통, 치통, 월경통, 피부염, 급성 상·하기도 감염 등
- 만성 통증** 골관절염,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성분·함량] 1정 중 Pelubiprolen 45mg [성상] 연한 황색의 원형 서방성 펠름코팅정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 급성통증(예: 외상 후 동통, 원발월경통) [용법·용량] 1회 1정, 1일 2회 식후 경구투여 원발성월경통의 경우, 초기 권장 투여량은 1정, 필요시 투여 첫날에 1정추가 둘째날 부터는 필요 시, 권장량으로 1회 1정, 1일 2회 투여 [포장·단위] 30정, 500정/Bottle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C) 보관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Daewon 대원제약

